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신라 원성왕대 독서삼품과 시행과 의미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하 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윤성호

## 신라 원성왕대 독서삼품과 시행과 의미

The Implement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DokseoSampungwa  
during the Reign of King Wonseong of Silla



HANSUNG  
UNIVERSITY

2025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하 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윤성호

## 신라 원성왕대 독서삼품과 시행과 의미

The Implement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DokseoSampungwa  
during the Reign of King Wonseong of Silla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하 민

이하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6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권기중 (인)

심사위원 윤성호 (인)

심사위원 박근철 (인)

# 국 문 초 록

## 신라 원성왕대 독서삼품과 시행과 의미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이 하 민

본 연구는 신라 하대 원성왕의 즉위 과정과 독서삼품과 시행의 정치적 배경, 내용, 그리고 그 결과와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원성왕은 해공왕 시해 후 유력한 왕위계승자였던 김주원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으나, 이에 따라 정통성의 불안정함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찬 제공의 시중직 임명 거절 사례에서 보듯이 원성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진골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원성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무백관의 관작 승진, 해공왕대 오묘제 개정안의 수용, 만파식적 설화의 활용 등을 통해 자신의 세력 포섭과 정통성 강화를 시도하였다.

원성왕 4년(788)에 시행된 독서삼품과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왕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작용하였다. 독서삼품과는 국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관인 등용 제도였으나, 국학의 졸업 시험이 아닌 국학생 외의 인물도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관인 선발 방식이었다. 시험과목은 상품·중품·하품으로 구분되었으며, 특히 상품 등급에서 『문선』이 핵심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당의 제서에 사용된 변려문(변체문, 駢體文) 해석 능력이 외교 실무에서 절실히 요

구되었던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문선』이 이미 국학의 교과목이었다는 점에서 진골들의 교육적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타협적 성격을 띠었다.

독서삼품과에는 "오경과 삼사, 제자백가의 저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었다. 자옥과 양열의 소수 임명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는 주로 도당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안사의 난 이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진골과 6두품 도당유학생을 포섭하기 위한 장치였다. 진골에게는 별도의 시험 없이 관직 진출의 기회를, 6두품에게는 신분적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독서삼품과 시행의 단기적 성과는 원성왕 7년의 정치적 변화에서 확인된다. 이찬 제공의 반란 진압, 원성왕의 손자들인 준옹과 언승의 주요 관직 임명, 6두품 출신 김언의 삼중아찬 임명 등은 원성왕이 일정한 진골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서삼품과는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외 규정의 남용으로 인한 시험 제도의 형해화, 골품제로 인한 6두품의 지방관 한정 임용, 그리고 여전한 정실 인사 등이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헌덕왕대 녹진의 조언에서 확인되는 인사행정의 문란은 독서삼품과 이후에도 능력 중심의 관료제가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독서삼품과는 신라에서 제도적 완성에 이르지 못했으나, 혈연 중심에서 학문적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6두품 지식인들의 관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능력주의적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최지원의 좌절과 그의 손자 최승로의 고려에서의 성공은 신라에서 실현되지 못한 지식인 중시 사상이 고려 과거제로 계승·발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요어】 원성왕(元聖王),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국학(國學), 문선(文選), 도당유학생(渡唐留學生)

## 목 차

제 1 장 머리말 .....	1
제 2 장 원성왕의 독서삼품과 시행 배경 .....	6
제 3 장 독서삼품과 내용에 대한 분석 .....	12
제 1 절 국학과 독서삼품과의 관계 .....	12
제 2 절 독서삼품과 예외 규정의 설치 목적 .....	24
제 4 장 독서삼품과 시행 결과와 의미 .....	28
제 5 장 맺음말 .....	35
참 고 문 헌 .....	38
부       록 .....	41
ABSTRACT .....	43

## 표 목 차

[표 1] 국학의 수업 과목 .....	14
[표 2] 독서삼품과 시험과목 .....	16

## 그 림 목 차

[도 1] 制書式 .....	18
[도 2] 肅宗命皇太子監國制 .....	20
[부도 1] 制書式 .....	41
[부도 2] 肅宗命皇太子監國制 .....	41

## 제 1 장 머 리 말

신라 하대는 惠恭王이 반란군에게 시해를 당한 후 宣德王이 왕위에 오르며 시작되었다.<sup>1)</sup> 그 후 선덕왕은 785년 후계를 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 왕위 계승은 왕의 조카뻘이었던 김주원이 유력 후보였으나 홍수로 인해 궁에 오지 못하자 당시 상대등인 나물왕 12대손 김경신이 元聖王으로 즉위하였다.<sup>2)</sup> 김주원과 김경신 사이에 왕위를 두고 쟁탈전이 발생하였으나 김경신이 이 쟁탈전에서 승리하여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것이다. 원성왕은 이러한 쟁탈전으로 인해 정통성 면에서 불안정함을 지닌 채 즉위했다.

원성왕은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포섭하고자 했다. 원성왕의 이러한 시도는 원성왕 4년(788) 시행된 관인 등용 제도인 독서삼품과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집중하여 원성왕의 왕위 계승 과정을 살펴보고 독서삼품과의 시행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원성왕대는 주로 정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원성왕이 유력 왕위계승자였던 김주원을 이기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선덕왕 재위 당시 귀족의 대표자인 상대등이었던 김경신[원성왕]이 중대적 성격(전제주의)을 대표하는 김주원을 이기고 왕위에 오른 것으로 파악한 연구가 있다.<sup>3)</sup> 해당 연구들은 상대등을 반왕파인 귀족의 대표자로 상정하여 원성왕 즉위로 인하여 전제주의적 성격을 띤 중대에서 귀족연립적인 성격의 하대로 시대적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신라 하대의

1)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12, 경순왕 9년 “나라 사람들이 시조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를 3대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眞德王까지 28명의 왕을 上代라 하고, 武烈王부터 惠恭王까지의 여덟 왕을 中代라 하며, 宣德王부터 敬順王까지 20명의 왕을 下代라 하였다.”

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원년.

3) 이기백,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사회과학』 2, 1958;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김수태, 「新羅 宣德王·元聖王의 王位繼承」,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136~148쪽; 김경애,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 王室의 成立」,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적 성격을 해명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대적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 집중하여 왕위 계승에 대한 성격을 왕권과 귀족과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틀 안에서 설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원성왕이 혈연적 기반과 정치 사회적 기반으로 유력 왕위계승자인 김주원을 이기고 왕위 계승한 것이 귀족의 대표로서 반전제주의 성격을 지닌 채 왕위 계승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연구도 존재한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하대의 정치적 성격 규명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왕위 계승에 관련한 혈연적 연관성에 치중되어 있고,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분석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성왕 즉위 이후의 연구는 원성왕계의 성립과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집중되었다.<sup>5)</sup> 종묘제 운영을 검토하여 원성왕계의 권력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목된다.<sup>6)</sup> 이러한 연구들은 원성왕대의 정치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신라 하대를 세밀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성왕은 즉위 이후 재위 기간 동안 관료 등용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가운데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독서삼품과의 시행이 주목된다.<sup>7)</sup>

독서삼품과는 관학인 국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국학에는 성립 시기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삼국사기』 본기와 직관지 기록에 따라서 신문왕 2년(682)에 설치되었다는 견해이다.<sup>8)</sup> 두 번째는 직관지의 국학 관원인 대사(大舍) 2인을

4) 김창검,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金周元系의 動向」, 『阜村申延澈教授 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1995.

5) 권영오, 「원성왕대 태자 책봉과 정국 운영」, 『지역과 역사』 51, 2022; 권영오, 「신라 하대 초기 인접계의 왕위계승과 분열」, 『대구사학』 154, 2024.

6)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박초롱, 「신라 하대 왕실의 종묘제 운영과 그 여파」, 『사림』 81, 2022.

7)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4년.

8) 이기백, 「新羅統一期 및 高麗初期의 儒敎的 政治理念」, 『대동문화연구』 6·7, 1970; 고정석, 「신라 관인선발제도의 변화」, 『역사와현실』 23, 1997; 이명식, 「新羅 國學의 運營과 再編」, 『대구사학』 59, 2000; 정호섭, 「新羅의 國學과 學生祿邑」, 『사총』 58, 2004; 전덕재, 「신라의 독서삼품과:한국 과거제도의 前史」, 『한국사 시민강좌』 46, 2010; 이영호, 「新羅 國學의 成立과 變遷」,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후보돈, 「신라의 국학수용과 그 전개」,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한영화, 「신라의 國學 敎育과 관인 선발」, 『신라사학보』 45,

두었다는 기록을 따라서 진덕왕 5년(651)에 설치되어 신문왕대에 정비 되었다는 견해이다.<sup>9)</sup>

국학생 구성과 관련한 연구도 있다. 해당 연구들은 『삼국사기』 직관지 국학조에 실린 국학의 입학과 출학 조건<sup>10)</sup>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학생은 관등이 대마나·나마에 이른 후 출학이 가능하다. 졸업 시 모두가 대나마와 나마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해 국학생은 대개 6두품이었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sup>11)</sup> 이에 반해 6두품 이상은 유학, 5두품 이하는 기술학을 공부했다는 견해<sup>12)</sup>, 주로 6두품이 국학생의 대다수였으나 진골도 존재하였다는 견해<sup>13)</sup>, 진골에서 5두품까지 존재했다는 견해<sup>14)</sup> 등도 제시되면서 근래에는 대체로 두품 신분을 중심으로 지배층 전반이 재학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독서삼품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학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편 독서삼품과의 성격에 관한 연구가 주목된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독서삼품과를 국학의 졸업 시험으로 보는 견해이다.<sup>15)</sup> 이는 독서삼품과 기록이 직관지 국학조 중간에 위치하고 시험과목이 국학의 교과목과 대다수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두 번째는 독서삼품과가 국학의 졸업시험이 아닌 여러 계층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 제도였다는 연구이다.<sup>16)</sup> 이

---

2019.

9) 이기동, 「新羅 中代の 官僚制와 骨品制」,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한준수, 「신라 국학수용과 그 전개」,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10) 『삼국사기』 권38, 잡지 7, 직관 상, 국학.

11) 이기백,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12) 이인철,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13) 고경석, 앞의 논문, 1997.

14) 정호섭, 앞의 논문, 2004.

15) 木村 誠, 「統一新羅の官僚制」, 『日本古代史講座』 6, 東京, 學生社, 1982; 이기백, 앞의 책, 1986; 이명식, 앞의 논문, 2000.

16) 이영호, 「新羅 國學의 成立과 變遷」, 『역사교육논집』 57, 2015; 이희관, 「新羅中代の 國學과 國學生 -『三國史記』 38 國學條 學生關係規定의 再檢討-」,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신라의 인재양성과 선발』 19, 1998; 홍기자, 「신라 하대 독서삼품과」,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신라의 인재양성과 선발』 19, 1998.

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독서삼품과와 국학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보인다.

최근에 당과 일본의 사료를 검토하여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완하여 국학과 독서삼품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17)</sup>

선행 연구들은 독서삼품과와 국학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그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독서삼품과 시행의 정치적 배경과 목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원성왕의 즉위 과정과 정통성 확립 전략, 그리고 독서삼품과 시행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 입각하여 원성왕 즉위 당시의 정치 상황을 검토하여 원성왕이 시행한 독서삼품과의 시행 목적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독서삼품과 시행의 목적을 밝히기 위해, 원성왕 즉위 과정과 정치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원성왕대에 관인 등용 제도인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던 배경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원성왕이 시행한 독서삼품과의 시행 목적과 결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독서삼품과와 국학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국학과 독서삼품과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독서삼품과 시행이 가능하였던 이유를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2절에는 독서삼품과의 예외 등용 규정의 설치 목적을 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외 등용 규정이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원성왕이 포섭하고자 했던 세력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독서삼품과의 시행 결과를 확인한다. 독서삼품과를 통해서 원성왕의 왕권 강화 시도를 확인하고, 신라 사회에서 독서삼품과가 지니는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성왕의 왕위 계승이 가능했던 배경과 왕권 강화를 위해 원성왕이 시도한 정책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된 독서삼품과가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 의미가

17) 한영화, 앞의 논문, 2019; 윤준혁, 「신라 국학생의 구성과 학생녹읍」, 『신라사학보』 60, 2024; 광명준, 「新羅 下代 讀書三品科의 시행과 변화」, 『사학연구』 157, 2025.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금석문 자료를 기본사료로 하였다. 더하여 『구당서』, 『신당서』, 『당육전』 등의 국외 사료도 참고하여 국내 사료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 제 2 장 원성왕의 독서삼품과 시행 배경

신라의 38대 왕인 원성왕의 즉위는 신라 하대의 실질적 시작으로 이해된다. 원성왕은 중대까지 이어오던 무열왕계가 아닌 범 나물왕계로 나물왕의 12세손이다. 하대의 첫 왕인 선덕왕도 나물왕계 10세손으로 부계혈연으로 무열왕계는 아니었으나, 그의 어머니인 사소부인이 성덕왕의 딸로서 모계로 무열왕계를 계승한 왕이었다는 점에서 원성왕과 차이가 있다.

경덕왕에 이어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 33일에 걸친 반란<sup>18)</sup>과 96각간의 난<sup>19)</sup>이 일어났을 정도로 당시 정치 상황은 혼란했다. 이런 시국에서 해공왕 16년(780)에 김지정이 난을 일으켰고,<sup>20)</sup> 해공왕은 반란군에 의해 시해당했다.<sup>21)</sup> 이때 난을 진압한 이가 바로 해공왕의 고종사촌인 김양상[선덕왕]이다.

김양상은 해공왕 10년(774) 상대등에 임명된 인물로 당시 주요 관직을 맡은 자였다.<sup>22)</sup> 김양상은 이찬 김경신과 함께 반란군을 진압하였으나 왕은 시해당했다. 후계자가 없이 사망한 해공왕의 뒤를 이어 당시 왕의 사촌이자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780년 선덕왕으로 즉위한 김양상은 자신과 함께 반란을 진압한 공을 인정하여 이찬 김경신을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sup>23)</sup> 상대등에 오른 김경신은 785년에 선덕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왕위를 계승하여 원성왕이 되었다.

18)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9, 해공왕 4년 “가을 7월에 일길찬 大恭이 아우 아찬 大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무리를 모아 33일간 왕궁을 에워쌌으나 왕의 군사가 이를 쳐서 평정하고 9족을 베어 죽였다.”

19) 『삼국유사』 권2, 기이 2, 「해공왕」.

20)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9, 해공왕 16년 “伊滄 金志貞이 반역하여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침범하였다.”

21)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9, 해공왕 16년 “여름 4월에 상대등 金良相이 伊滄 敬信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金志貞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22)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9, 해공왕 10년 “가을 9월에 伊滄 良相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23)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9, 선덕왕 원년 “伊滄 敬信을 상대등으로 삼고, 阿滄 義恭을 시중으로 삼았다.”

A-1. 元聖王 元年(785) 元聖王이 즉위하였다. 왕의 이름은 敬信으로 奈勿王의 12세손이다. … 일찍이 惠恭王 말년에 叛臣이 跋扈하였는데, 宣德王이 당시 上大等이 되어 앞장서서 임금의 곁에 있는 나쁜 무리를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신이 그에 동조하여 난을 평정하는데 공이 있었기에,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상대등이 되었다. … “지금 상대등 경신은 전왕의 동생으로 평소 덕망이 높고 왕의 자질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 경신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외쳤다.<sup>24)</sup>

A-2. 貞元 元年(785; 新羅 元聖王 1)에 良相에게 檢校太尉 都督雞林州 刺史 寧海軍使 新羅王을 除授하였다. 이어서 戶部郎中 蓋塤에게 符節과 冊命을 주어 보냈다. 그 해에 良相이 죽하니, 上相 敬信을 세워 王으로 삼고, 그 官爵을 승습케 하였다. 敬信은 곧 (前王과) 從兄弟사이이다.<sup>25)</sup>

A-3. 貞元 元年 (785; 新羅 元聖王 1)에 戶部郎中 蓋塤에게 符節을 주어 보내어 良相을 (王으로) 冊封하였다. 이 해에 (良相이) 죽으니, 良相의 從父弟인 敬信을 세워 王位를 계승시켰다.<sup>26)</sup>

그러나 김경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아니었다. A-1 기사는 『삼국사기』 원성왕 원년의 기사로 해당 기사를 통해 원성왕의 즉위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 기사에 따르면 당시 왕위 계승을 두고 재상이자 무열왕계였던 김주원과 김경신 사이의 왕위 쟁탈이 발생하였다.<sup>27)</sup> 신하들은 김주원을 왕으로 앞세웠으나 폭우로 인해 김주원이 오지 못하자 신하들은 당시 상대등이었던 김경신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24)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원년.

25) 『구당서』 동이열전, 신라, 정원 원년.

26) 『신당서』 동이열전, 신라, 정원 원년.

27) 『삼국유사』 권2, 기이 2, 「원성대왕」 “伊殮金周元初爲上宰, 王爲角干居二宰…”

기후로 인해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나, 유력한 왕위계승자인 김주원을 제치고 김경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김경신이 무열왕계의 정통성과 재상이라는 위치에 있던 김주원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A-1 기사는 김경신을 전왕[선덕왕]의 동생이라 서술하고, A-2 『구당서』 기사는 ‘從兄弟’ 사이, A-3 기사인 『신당서』에서는 ‘從父弟’라고 서술되어 있다. 각각 다르게 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그들의 정확한 관계를 유추하는 것은 어려우나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사촌 관계로 서술하고 있어 양자 간의 혈연적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혈연적 배경을 바탕으로 김경신은 선덕왕대의 정치적 실권자로 부상할 수 있었고, 이것이 왕위 계승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김경신은 혈연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덕왕대의 정치적 실권자로 부상하였고, 선덕왕 재위 기간 동안 상대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세력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통성 면에서 본인보다 우위에 있던 김주원을 이기고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렇지만 원성왕의 정통성 문제는 계속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A-1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성왕은 국민, 즉 신하들의 추대로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모든 진골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B. 元聖王 元年(785) 2월에 … 문무백관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伊滄 兵部令 忠廉을 上大等으로 삼고 伊滄 悌恭을 侍中으로 삼았는데, 悌恭이 사양하므로 伊滄 世強을 시중으로 삼았다.<sup>29)</sup>

B 기사를 보면 원성왕은 즉위 이후 문무백관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고 주요 관직들을 새로 임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성왕의 시도는 자신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0)</sup>

28) 김창겸, 「원성왕의 선대와 혈연적 배경」,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47쪽.

2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원년.

30) 권영오, 「新羅 元聖王의 즉위 과정」, 『부대사학』 19, 1995, 167쪽.

이때 주목되는 인물이 伊滄 悌恭이다. 원성왕이 그를 시중직에 임명하려 했으나 제공이 이를 거절한 기록은 유력 진골 중 원성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제공과 같은 인물의 거부는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원성왕에 대한 진골들의 반감을 대표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을 것이다.<sup>31)</sup>

즉 원성왕은 즉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진골들의 회유를 시도하였으나, 제공과 같이 원성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원성왕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원성왕은 상징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五廟制 개편을 단행했다.

C-1. 元聖王 元年(785) 2월 … 聖德大王과 開聖大王의 두 사당[廟]을 없애고, 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과 조부 興平大王·죽은 아버지 明德大王을 五廟로 만들었다.<sup>32)</sup>

C-2. 제36대 惠恭王에 이르러 처음으로 五廟를 정했다. 味鄒王으로써 김씨 성[金姓]의 시조로 삼았고, 太宗大王·文武大王은 百濟, 高句麗를 평정한 큰 덕이 있다고 하여 모두 대대로 할지 못하는 신주로 삼고 [不毀之宗], 여기에 親廟 둘을 더하여 五廟로 삼았다.<sup>33)</sup>

C-1의 기사를 통해 원성왕이 자신의 四祖를 추봉하고 오묘의 신위 개편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성왕이 성덕왕의 사당을 폐함으로써 무열왕계를 벗어나 중대 왕실과의 단절을 시도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한다.<sup>34)</sup> 그러나 원성왕의 신위 개편은 혜공왕대의 개정안을 따른 것이었다. 이에 C-2 기사가 주목된다.

C-2 기사에서는 혜공왕대의 오묘제가 개정되었음을 전한다. 이때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不毀之宗’, 즉 무열왕과 문무왕을 기본으로 한 오묘제가 시행

31) 권영오, 앞의 논문, 2022, 183쪽.

3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원년.

33) 『삼국사기』 권32, 잡지 1, 제사.

34) 채미하, 앞의 책, 2008, 195-202쪽.

되었다는 점이다. 원성왕이 ‘불훼지종’을 강조한 해공왕대의 개정안을 따른 것은 중대와의 연속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왕위 계승에서 발생한 정통성의 불안정함을 무열왕계의 마지막 왕인 해공왕의 개편안을 수용함으로써 보완하려는 시도인 것이다.<sup>35)</sup>

‘불훼지종’인 무열왕과 문무왕의 신위를 그대로 둔 것은 김주원이 아닌 자신이 중대 무열왕계를 정당하게 계승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동시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던 자신의 고조와 증조, 아버지를 추봉한 것은 자신의 혈통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왕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sup>36)</sup>

다음으로 원성왕의 정통성 강화 전략은 萬波息笛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D-1. 왕(원성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日官 金春質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돌아가신 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三韓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金公庾信도 33천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덕을 같이 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어주려 하시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시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보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月城의 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이를 萬波息笛으로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sup>37)</sup>

D-2. 왕(원성왕)의 아버지 大角干 孝讓이 대대로 전해져 오는 萬波息笛을 왕에게 전했다. 왕은 이것을 얻었으므로 하늘의 은혜를 두텁게 입어 그 덕이 멀리까지 빛났다. <sup>38)</sup>

D-1 기사는 신문왕대 만파식적과 관련된 설화이다. 만파식적은 중대 무열

35) 박초롱, 앞의 논문, 2022, 100-101쪽.

36) 박초롱, 앞의 논문, 2022, 118쪽.

37) 『삼국유사』 권2, 기이 2, 「만파식적」.

38) 『삼국유사』 권2, 기이 2, 「원성대왕」.

왕계에 있어서 왕위 계승의 상징물이며 신라 평화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sup>39)</sup>

그런데 D-2 기사는 중대 왕실의 상징성이 강한 만파식적이 원성왕의 아버지인 孝讓을 통해 원성왕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만파식적이 원성왕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이 설화는 그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40)</sup>

만약 이 설화가 전승·유포된 시기가 원성왕대 이후라면 '지배계층의 강한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파식적 설화는 단순한 신화적 상징을 넘어서 원성왕의 왕권 강화와 진골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원성왕이 직면한 정통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징적 차원에서 동원한 전략의 하나였다.<sup>41)</sup> 원성왕은 만파식적을 이용해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높여서 이찬 제공과 같은 진골들의 반발을 잠재우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성왕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관료 체제의 정비였다. 기존의 신라 관료제는 진골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구조였으며, 이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혜공왕대 이후 빈발한 반란과 정치적 혼란은 기존 관료 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집권체제에서 잘 정비된 관료조직은 필수 요소였다.<sup>42)</sup> 원성왕은 왕권 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혈통 중심 관직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원성왕은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성왕이 시행한 독서삼품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39) 김상현,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 34, 1981; 김수태, 앞의 책, 1996, 38-39쪽.

40) 윤선태, 「『三國遺事』 紀異篇 '元聖大王'條의 가치 -신라 '下古'시기의 정치구조와 그 함의-」,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8, 2017, 45쪽.

41) 권영오, 앞의 논문, 1995, 165-167쪽.

42) 고경석, 앞의 논문, 1997, 77쪽.

## 제 3 장 독서삼품과 내용에 대한 분석

### 제 1 절 국학과 독서삼품과의 관계

신라 중대 이후,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와 함께 유학적 이념에 기반한 관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신문왕 2년(682)에 설립된 國學은 국가 주도의 교육기관으로서,<sup>43)</sup> 지배 이념의 내면화와 관료 양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sup>44)</sup>

원성왕 4년(788)에 시행된 독서삼품과는 학문적 자질과 유교 경전의 숙독 정도에 따라 인재를 등급화하여 관직 진출의 기준으로 삼았다. 유교적 이념이 신라의 관학인 국학을 통해 이미 교육되고 있었기 때문에 독서삼품과의 시행을 국학과 완전히 구분하여서 살펴볼 수 없다.

먼저 『삼국사기』 직관지 국학조의 기사와 원성왕 4년조 독서삼품과 시행 기사를 통해서 국학과 독서삼품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겠다.

E. ① 國學. 禮部에 속하였다. 神文王 2년(682)에 설치하였다. 景德王이 이름을 太學監으로 바꾸었지만, 惠恭王이 옛 이름으로 되돌렸다.

卿은 1명이다. 景德王이 이름을 司業으로 바꾸었지만, 惠恭王이 다시 경으로 부르게 하였다. (임명하였던 사람의) 관등[位]은 다른 경과 같다.

博士 [몇 명이 있었고, 정원은 없다.]

助教 [몇 명이 있었고, 정원은 없다.]

大舍는 2명이다. 眞德王 5년(651)에 두었다. 景德王이 이름을 主簿로 바꾸었지만, 惠恭王이 다시 대사로 부르게 하였다. 관등[位]이 舍知에서 奈麻까지인 자를 임명하였다.

史는 2명이다. 惠恭王 원년(765)에 2명을 늘렸다.

② (학생을) 가르치는 법은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

43)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신문왕 2년 “6월에 國學을 설립하고 卿 1인을 두었다.”

44) 이기백, 앞의 책, 1986, 197-198쪽.

傳』, 『文選』을 나누어 수업하였다. 博士와 助教 1명이 『禮記』, 『周易』, 『論語』, 『孝經』을 가르치거나, 『春秋左傳』, 『毛詩』, 『論語』, 『孝經』을 가르치거나, 『尙書』, 『論語』, 『孝經』, 『文選』을 가르쳤다.

③ 학생들은 (위의) 책들을 공부하여[讀書] (성적에 따라) 세 등급[三品]으로 나뉘어 관직에 진출하였다[出身]. 『春秋左氏傳』과 『禮記』, 『文選』을 읽고 그 뜻을 통달하면서 아울러 『論語』와 『孝經』에 밝은 자는 上品으로, 「曲禮」와 『論語』, 『孝經』을 읽은 자는 中品으로 삼고, 「曲禮」와 『孝經』을 읽은 자는 下品으로 하였다. 만약 五經과 三史, 諸子百家의 저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이라면 등급을 뛰어넘어 선발하여 등용하였다.

④ 혹은 算學博士와 助教 1명이 『綴經』, 『三開』, 『九章』, 『六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⑤ 무릇 학생들은 관등[位]이 大舍 이하로부터 관등이 없으면서[無位] 나이가 15살에서 30살까지인 자로 모두 충당하였다. (재학 기간은) 9년을 한도로 하고, 만약 단순하고 어리석어서 깨우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게 하였다. 만약 재능과 기량이 있으면서 아직 미숙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9년의 기한을 넘겼더라도 남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관등[位]이 大奈麻와 奈麻에 이르게 되면 국학에서 내보냈다.<sup>45)</sup>

E-① 기사는 신라 국학의 조직과 관제 변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학의 조직과 관제가 시대 상황에 따라 명칭과 정원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E-② 기사는 국학에서 이루어진 교육 내용과 교수 체계에 관한 것이다. 국학의 학생들은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씨전』, 『문선』 등 유교 경전을 나누어 수업을 받았다. 박사와 조교가 각 조를 이루어 경전을 가르쳤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45) 『삼국사기』 권38, 잡지 7, 직관 상, 국학.

[표 1] 국학의 수업 과목

과목	
①	『禮記』, 『周易』
②	『春秋左傳』, 『毛詩』
③	『尙書』, 『文選』

E-③ 기사는 학생 평가와 관직 진출, 즉 독서삼품과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경전 학습 성취도에 따라 上品, 中品, 下品으로 나뉘었다.

E-④ 기사는 국학에서 이루어진 算學 등 기술 교육에 관한 것이다. 국학이 유교 경전 교육뿐 아니라 실용적인 산학 등 기술 교육도 병행했음을 보여준다.

E-⑤ 기사는 국학 학생의 선발, 재학, 졸업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학생은 大舍 이하의 관등을 가진 자 또는 無位인 자로, 15세에서 30세까지의 남성으로 충당되었다. 재학 기간은 9년을 한도로 하였으며, 학업 성취가 부족한 자는 퇴학시켰다. 반면, 재능은 있으나 아직 미숙한 자는 9년을 초과해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학생이 大奈麻나 奈麻 관등에 이르면 국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국학생의 신분은 E-⑤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국학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대략 9년이였다. 그리고 미숙한 자라도 깨우칠 가능성이 있으면 9년을 넘어 재학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다만 시험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대략 9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면 관직으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골도 독서삼품과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학에서 수학한 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로 발탁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진골의 경우 국학에서 정한 연한만 채우면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46)</sup> 진골에게 국학은 쉬운 등용로였기 때문에 국학생 가운데 진골의 수가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독서삼품과의 시행이 국학조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국학과 독서삼품과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서삼품과를

46) 조범환, 「통일신라 국학의 변천과 진골」, 『동아시아고대학』 63, 2021, 511-512쪽.

국학의 졸업 시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47)</sup> 그러나 독서삼품과가 국학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졸업시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독서삼품과는 유교적 소양을 시험하여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이며 당의 과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당의 과거제는 국자감의 수학 내용을 평가하지만 국자감의 졸업 시험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독서삼품과 내용이 국학조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국학의 졸업 시험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sup>48)</sup> 그렇다면 국학과 독서삼품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F. 元聖王 4(788) 봄에 처음으로 讀書三品을 정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春秋左氏傳』과 『禮記』, 『文選』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면서 아울러 『論語』와 『孝經』에 밝은 자를 上品으로, 「曲禮」와 『論語』, 『孝經』을 읽은 자를 中品으로, 「曲禮」와 『孝經』을 읽은 자를 下品으로 하였다. 만약 五經과 三史, 諸子百家의 저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이라면 등급을 뛰어넘어 선발하여 등용하였다. 전에는 단지 활쓰기로 관리를 선발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고쳤다[至是改之].<sup>49)</sup>

F 기사는 『삼국사기』 원성왕 4년의 기사로 E-③ 기사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전에는 단지 활쓰기로 관리를 선발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고쳤다.[至是改之]”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이 기사를 통하여 볼 때 독서삼품과는 이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sup>50)</sup> 독서삼품과의 시행은 이전까지 명확한 규정 없이 친족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관직 등용이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기사에는 ‘모든 학생[諸生]’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차이는 두 기사에서 다루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라본기의 경우 원성왕이 시행한 제도를 서술하고 있기에 제도의 시행 측면에서 새로이 시행된 면이 강조되어 서술되었다. 그러나 국학조에서는 국학

47) 이기백, 앞의 책, 1986, 226-231; 이명식, 앞의 논문, 2000, 21-25쪽.

48) 홍기자, 앞의 논문, 1998, 137-138쪽.

4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4년.

50) 한영화, 앞의 논문, 2019, 357쪽.

생의 관직진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기재되었다. 그렇기에 같은 제도를 두고 차이가 다르게 서술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학조에 독서삼품과의 시행이 기재된 것은 국학생의 졸업 시험이 아닌 관인 등용 방식으로 국학생 들 또한 독서삼품과를 통해 관직 진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서삼 품과의 규정은 국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학과 독서삼품과를 완전한 별개의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독서삼 품과는 새로운 관인 등용 제도였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진골의 지지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독서삼품과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등급에 따른 독서삼품과의 시험과목을 살펴본 것이 [표 2]이 다.

[표 2] 독서삼품과 시험과목

등급	시험과목
상품(上品)	『春秋左氏傳』과 『禮記』, 『文選』을 읽고 그 뜻을 통달하면서 아울러 『論語』와 『孝經』에 밝은 자[明]
중품(中品)	「曲禮」와 『論語』, 『孝經』을 읽은 자[讀]
하품(下品)	「曲禮」와 『孝經』을 읽은 자[讀]
예외 규정 [超擢]	五經과 三史, 諸子百家의 저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通]

신라 국학의 교육 과목은 기본적으로 당의 교과목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당 의 교과목이 아닌 『문선』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선』 은 국학의 교과목이자 독서삼품과 상품 등급의 시험과목이었다.

독서삼품과의 최상위 등급인 상품에서는 『문선』을 『예기』·『춘추좌씨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 시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문선』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선』의 수용과 관련하여 태종무열왕대의 일화가 주목된다.

G-1. 태종대왕이 즉위하였을 때, 당의 사자가 와서 詔書를 전하였다. 그 중에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왕이 그를 불러 물었다. 왕 앞에서

한 번 보고는 풀어서 설명하는데 의심이나 막힘이 없었다.<sup>51)</sup>

G-2. 太宗武烈王 元年(654) 5월 당에서 사신을 보내 符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왕을) 開府儀同三司 신라왕으로 봉하였다.<sup>52)</sup>

G-1 기사에 따르면 무열왕 즉위 후 신라에서 당이 내린 조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에서 유학한 강수가 이를 막힘없이 해석하였다. 신라가 받은 조서의 성격을 파악하면 강수가 해석한 문장의 특성을 알 수 있다.

G-2 기사를 보면, 강수가 해석한 문서가 당의 책봉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책봉 문서는 어떤 형식의 문서를 이르는 것일까?

H. 대저 왕언의 제도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책서라 하고, 황후와 태자를 세우거나, 번병을 봉하거나 존현한 자를 특별히 임명하거나, 임현하여 예를 갖추(어 책명하려)면 이를 사용한다. 둘째 제서라 하며, 큰 상벌을 행하거나, 큰 관작을 주거나, 구정을 개혁하거나, 사유·강(降)·여(虞)하려면 이를 사용한다. 셋째 위로제서라 하고, 현능한 이를 포상·찬양하거나, 힘써 노력한 이를 권면하려면 이를 사용한다. 넷째 발일칙이라 하며, 황제가 재가한 발일칙을 말한다. 관인 정원의 증감, 주현의 폐치, 병마의 징발, 관작의 제면과 6품 이하 관직의 수여, 유형 이상 죄의 처분, (그리고) 창고의 물품 (포백) 5백 단, 전 20만 (문), 창고의 양곡 5백석, 노비 20인, 말 50필, 소 50두, 양 5백 구 이상을 쓰려면 이를 사용한다. 다섯째 칙지라 하고, 모든 관사에서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규정으로 삼는 것과 상주로써 시행하기를 청한 것(에 대한 성지의 승인)을 말한다. 여섯째 논사칙서라 하며, (특정 사안에서) 공경을 위로·인도하거나 신하를 경계·약속하려면 이를 사용한다. 일곱째 칙첩이라 한다. 사안에 따라 황제의 뜻을 받들지만 예전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를 사용한다. (이러한 왕언은) 모두 (중서성에서) 선지하여 서명하고 (문하성에서) 복주하게 하여 (상서성에서) 시행하게 한다.<sup>53)</sup>

51) 『삼국사기』 권46, 열전 6, 강수 “及太宗大王即位, 唐使者至, 傳詔書. 其中有難讀處, 王召問之. 在王前, 一見說釋, 無疑滯.”

5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원년 “唐遣使持節備禮, 冊命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H 사료는 『당육전』의 王言에 관련된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황제가 내리는 왕언은 7가지가 있으며, 이 중 큰 관작을 내리는 문서는 制書로 구분된다. 따라서 무열왕대 당에서 받은 문서는 제서에 해당한다.

제서의 문서 형식을 확인해보면 아래 [도 1]과 같다.

[도 1] 制書式<sup>54)</sup>

門下: 云云. 主者施行.  
 年 月 〈御畫〉 日  
 中書令具官封臣姓名 宣  
 中書侍郎具官封臣姓名 奉  
 中書舍人具官封臣姓名 行  
 侍中具官封臣名  
 黃門侍郎具官封臣名  
 給事中具官封臣名 等言,  
 臣聞: 云云. 臣等云云, 無任云云之至. 謹奉  
 制書如右, 請奉  
 制, 付外施行, 謹言.  
 年 月 日  
 可 〈御畫〉

[도 1]은 당대 공식령에 규정된 제서식을 복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당대 제서는 '門下云云主者施行'으로 시작하여 황제가 친필로 날짜를 기입한 후,

53) 『당육전』 권9, 중서성 “凡王言之制有七: 一曰冊書, 〈立后建嫡, 封樹藩屏, 寵命尊賢, 臨軒備禮則用之.〉

二曰制書, 〈行大賞罰, 授大官爵, 釐年舊政, 赦宥降慮則用之.〉

三曰慰勞制書, 〈褒贊賢能, 勸勉勤勞則用之.〉

四曰發日敕, 〈謂御畫發日敕也. 增減官員, 廢置州縣, 徵發兵馬, 除免官爵, 授六品已下官, 處流已上罪, 用庫物五百段, 錢二百千, 倉糧五百石, 奴婢二十人, 馬五十疋, 牛五十頭, 羊五百口已上則用之.〉

五曰勅旨, 〈謂百司承旨而爲程式, 奏事請施行者.〉

六曰論事敕書, 〈慰諭公卿, 誠約臣下則用之.〉

七曰敕牒. 〈隨事承旨, 不易舊典則用之. 皆宜署申覆而施行焉.〉”

54) 『당령습유보』, 공식령 제1조, 542-546쪽; 『당령습유보』, 제1조, 제1乙조, 705-707쪽, 「당일양령대조일람」, 1235-1238쪽, 번역문 [부도 1] 참조

중서 삼관이 '具官封臣姓名 宣/奉/行'으로 小字 서명하고, 문하 삼관이 '具官封臣名 등언'부터 '臣聞云云臣等云云無任云云之至謹奉' 형식의 표문 양식으로 복주문을 小字로 작성하여 제서 시행을 청하면, 황제가 '可'라고 친필로 재가하고 시중이 이를 '制可'로 모사하여 최종 완성되는 구조였다.<sup>55)</sup>

이러한 구조에서 '云云'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황제의 하행문서인 제서 중 大事의 경우 황제의 덕을 칭송하고 공업을 찬양하는 글이 들어간다.<sup>56)</sup> 사료의 부족으로 무열왕 즉위 시 당의 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sup>57)</sup> 그러나 이러한 글의 양상은 다음의 실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5) 양진성, 「唐代 制書式 復元の 재검토 - 制授告身式과 制授告身の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 고증세사연구』 52, 2019, 183-184.

56) 『당육전』 권8, 문하성 “제서와 칙서를 선포할 때는 대사의 경우 황제의 덕택을 칭양하고 공업을 찬양하면서 복주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며, 소사의 경우 (복주하지 않고) 서명하여 반포한다.”

57) 『구당서』 권199, 신라전과 『책부원귀』 권964, 외신부, 책봉조에 조서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도 2] 肅宗命皇太子監國制<sup>58)</sup>

門下：天下之本，屬於元良，四方之明，資其繼照。是有傳歸之義，必膺監撫之重，克廣前烈，與人守邦。非君父之獨親，俾生靈之同戴。朕號慕弓劍，寢居綾絰，頃以疾苦，未能康寧。殘寇猶虞，中原多壘，軍國大務，理須叅決。乃眷七鬯，共承宗祧。皇太子豫，天縱聰明，日躋德業，中興締構，已有大功。問安內寢，占九國之夢，制勝戎闔，高五官之才。時方艱難，禮在諒闇，其以庶政，委之元子，宜令權監國。又上天降寶，獻自楚州，神明告曆數之符，金璧定妖災之氣。總集瑞命，祇承鴻休，因以體元，叶於五紀。其元年宜改爲寶應元年。建巳月改爲四月，其餘月並依常數。仍舊以正月一日爲歲首。受茲福應，佇以升平。因日月之重光，布雲雨之渥澤。其天下見禁囚徒，罪無輕重，並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四月十五日昧爽以前，一切放免。左降官宜卽量移近處，流人即一切放回。有司更不得輒有類例條件。其楚州刺史并出寶縣官及進寶官等，量與進改，隨進寶官典倅等，各量與一官。宣示中外，咸知朕意，主者施行

司徒兼中書令 關

戶部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兼知中書事 臣 元載 宣

德郎檢校中書舍人 臣 楊綰 奉行

特進行侍中上柱國韓國公 臣 晉卿

銀青光祿大夫行黃門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臣 遵慶

朝請大夫守給事中 臣 液 等言

臣聞：明兩作離，所以照天下，洊雷爲震，所以貞萬邦。故書美元良，易昭七鬯。伏惟皇帝陛下，玄德廣被，仁風大洽，匡復宗社，弘濟艱難，孝道純深，聖懷罔極，居憂致毀，恭默何言。伏惟皇太子，承累聖之資，稟自天之訓，問安有禮，無闕三朝，保大成功，已申七德。是命守邦之重，允彰知子之明。況神其告符，天不秘寶，克昌景命，必靜妖氛，豈謝金縢啟翌日之期，玄符告彝倫之敘。是故統元立極，復舊惟新，因瑞以表年，順人而定嗣，宥過無大，囹圄皆空，俾人遷善，遐荒必被。休徵昭其靈貺，官吏沐其鴻私。臣等叨侍軒墀，恭承典禮，感戴之極，倍萬恒情，無任懇款之至。請奉制付外施行。謹言

[도 2]는 제서의 실례인 「肅宗命皇太子監國制」 중 제서식의 '云云'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글을 보면 해당 부분에는 변려문(변체문, 駢體文)이 사용

58) 『당대조령집』 권30, 「황태자, 감국조.

이 制書는 『舊唐書』 卷10 「肅宗本紀」에 따르면 肅宗 上元 3년(762), 建巳月 乙丑(4월 15일: 서력 5월 13일)에 반포한 것.

中村裕一(『隋唐王言の研究』, 2003, 36쪽)의 고증에 따르면 이 制書는 『文苑英華』 卷432 「翰林制詔」 13에 〈寶應元年皇太子監國頒天下敕文〉이라는 題名으로 수록되어 있고, 『冊府元龜』 卷259 「儲宮部」 「監國」條에 전반부가 후반부는 同書 卷87 「帝王部」 「赦宥」條에 수록되어 있다. 이 制書의 원문에 대한 補正과 복원은 中村裕一, 36-39쪽, 2003 참조. 번역문 [부도 2] 참조

되어 있다. 변려문은 일반적인 문서 형식이 아니라 대구법과 성을 활용하여 수사적 효과를 추구하는 문체로서, 한문의 단순한 이해가 아닌 경전이나 한시 등에 대한 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의 제서에서는 변려문이 사용되었다. 신라 관인들이 무열왕의 당 책봉 제서를 해석하지 못하고, 당에서 유학한 강수만이 이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신라 사회에서 변려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당전쟁 이후 신라와 당의 외교적인 관계가 심화되면서 조서의 문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필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려문 이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라는 체계적인 교육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신문왕 대에 국학의 과목으로 『문선』을 채택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선』은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 소명태자 蕭統이 편집한 30권의 종합적 인문학 선집으로, 經·史·子·集 4부 체제에 입각하여 문학, 사학, 철학은 물론 금석학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식을 담고 있다. 周代에서 梁代에 이르기까지 130인의 작가가 쓴 761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어 중국 고전 문학의 정수를 집약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sup>59)</sup>

당대 문선학의 융성과 함께 변려문을 중심으로 한 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진사과를 비롯한 과거제도 전반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sup>60)</sup> 즉, 『문선』은 당의 관리 선발에 필수불가결한 학문이었다. 따라서 신라 역시 당과의 원활한 외교 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갖춘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였다.

신라는 국학에서 『문선』을 교육함으로써 당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덕왕 대에 이르러 지방제도 개혁<sup>61)</sup> 등 한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당 행정에 대한 이해 능력은 단순한 외교 업무를 넘어 국내 행정 전반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더욱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되었

59) 노용필, 「신라 국학의 교육 내용과 『문선』」,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104-107쪽.

60) 김학주, 「문선」, 『中國의 古典 100選』, 동아일보사, 1980, 30쪽.

61)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9, 경덕왕 16년.

다.

독서삼품과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된 것이다. 원성왕은 관인 등용 정책을 통해 기존 국학 교육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더욱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높은 교양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진행된 독서삼품과의 성격은 당의 과거제도와 비교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에서 시행된 과거제에는 여러 시험과목이 있었으나 그 중 明經科와 진사과가 대표적이다. 당 과거제도에서 진사과는 명경과보다 현저히 어려운 시험이었으며, 이러한 높은 난이도가 곧 탁월한 변별력으로 이어져 당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당시 "서른에 명경에 합격하면 늦은 것이고 오십에 진사에 합격하면 이른 것이다[三十老明經, 五十少進士]"라는 세평이 있을 정도로,<sup>62)</sup> 진사과 통과와 어려움은 당대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명경과는 유교 경전의 암기와 기계적 이해에 중점을 둔 帖經 방식의 평가였다.<sup>63)</sup> 반면 진사과는 時務策을 통해 현실 정치에 대한 분석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였으며, 여기에 詩와 賦 등의 문학 창작 능력까지 요구하는<sup>64)</sup> 종합적 학력 평가의 성격을 띠었다.<sup>65)</sup>

독서삼품과는 이러한 당의 과거제도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사과는 단순한 유교적 지식을 넘어 문학 창작 능력과 현실 정치 분석까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독서삼품과 상품 등급에서 단순히 당의 대경에 해당하는 유교 경전만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문선』을 포함시킨 것이 바로 진사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62) 『당척언』 권1, 「산서진사」, 4쪽.

63) 『신당서』 권44, 지 35, 선거지 상 “무릇 明經은 먼저 첩문을 보고, 그 다음 구두시험을 치르는데, 경전에서 大義 열 조항을 묻고, 時務策 세 도에 답하게 하며, 역시 네 등급으로 나눈다.”; 『당육전』 권4, 상서예부 “무릇 명경과의 (시험방법)은 먼저 첩경한 뒤 구술시험을 보고 아울러 책문에 답하게 하여 대략 문리가 있는 자를 취하여 통으로 간주한다.”

64) 『신당서』 권44, 지 35, 선거지 상 “무릇 進士는 時務策 다섯 도와 帖一 大經을 시험하며, 경전과 시무책을 모두 통달한 자를 甲第로 하고, 시무책 네 도와 첩문 네 조 이상 통과한 자를 乙第로 한다.”; 『당육전』 권4, 상서예부 “무릇 진사는 먼저 첩경한 뒤 잡문과 책을 시험하며, 잡문은 (그 문장이) 형식과 내용이 모두 갖춘 (것을) 취하고 책은 반드시 義理에 합당한 경우 통으로 간주한다.”

65) 하원수, 『과거제도형성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82-84쪽.

즉, 『문선』은 독서삼품과의 상품 등급이 진사과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과목인 것이다. 『문선』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독서삼품과의 상품에 해당하는 이들이 높은 난이도의 시험을 통해 능력 있는 관리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독서삼품과에서 『문선』이 상품 등급의 핵심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학문적 능력 중심의 관리 선발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골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문선』의 채택은 진골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문화적 우위와 교육적 기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골품제 사회에서 진골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였다.

진골들은 독서삼품과 시행 이전부터 국학을 통하여 『문선』을 비롯한 상품 시험 과목에 대한 학습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신라의 국학은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진골 자제들이 입학하였으며, 이들은 이미 『문선』을 포함한 고도의 유교 경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국학의 교육과정에서 『문선』은 『춘추좌씨전』과 함께 3개 영역 중 하나를 구성하는 핵심 과목이었으며, 진골 자제들은 7년의 수학 연한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sup>66)</sup>

이러한 상황에서 원성왕의 독서삼품과 시행은 제도 개혁의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진골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타협적 성격을 띠었다. 즉, 진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험과목의 채택을 통해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원성왕은 이를 통해 제도 개혁의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독서삼품과의 시행을 통해 등용된 것은 진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외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66) 한영화, 앞의 논문, 2019, 348쪽.

## 제 2 절 독서삼품과 예외 규정의 설치 목적

독서삼품과의 시행을 담고 있는 E-③, F 기사에는 “만약 五經과 三史, 諸子百家의 저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이라면, 등급을 뛰어넘어 선발하여 등용하였다”라고 예외 규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이 예외 규정이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독서삼품과가 시행된 다음 해의 기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I-1. 元聖王 5(789) 9월에 子玉 楊根縣 小守로 삼았다. 執事史 毛肖가 반대하며 말하기를, “子玉은 文籍으로 선발된 사람이 아니므로, 지방관의 직분[分憂之職]을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侍中이 의견을 말하기를, “비록 문적으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당으로 들어가 (국자감의) 學生이 되었으니, 또한 (지방관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그 의견을 따랐다.<sup>67)</sup>

I-2. 哀莊王 元年(800) 8월에 前 入唐宿衛學生 梁悅을 豆胘縣 小守에 임명하였다. 이전에 唐 德宗이 奉天으로 거동했을 때 梁悅 난리에 수행한 공이 있어, 황제가 右贊善大夫를 제수하여 돌려보냈기 때문에 왕이 그를 발탁하여 썼다.<sup>68)</sup>

I-1 기사는 원성왕 5년(789) 자옥의 지방직 관리인 小守 임용과 관련된 논쟁에 대한 기사이다. 논쟁의 핵심은 文籍이 아닌, 다시 말해서 독서삼품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의 관직 임명이다.<sup>69)</sup> 이에 대한 임용의 정당화 근거로도당유학 경험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승인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옥이 문적 출신이 아니면서도 지방관으로 임명된 것은 당시로서는 특별

67)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5년.

68)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애장왕 원년.

69) 한영화, 앞의 논문, 2019, 364-365쪽.

한 사례였으며, 이는 독서삼품과를 통한 정규 관리 선발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도당유학 경험만으로도 관직 진출이 가능했다는 점에 서 독서삼품과 외에 다른 임용 경로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I-2 기사는 애장왕 원년(800) 8월에 있었던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전 입당숙위학생 梁悅이 두힐현 소수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그가 당 덕종의 봉 천 행차 시 수행한 공로로 右贊善大夫를 제수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례는 도당유학생들이 독서삼품과와는 별도의 경로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독서삼품과의 예외 규정이 문적 출신인 국내파와 함께 對 당 유학파도 임용하여 두 가지 방식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시행되었음을 시사 한다.<sup>70)</sup>

예외 규정이 신라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도당유학생의 신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의 도당유학생이 공식적으로 파견된 것은 善德王 9년(640)이다.<sup>71)</sup> 초기 도당유학생의 파견은 외교적인 목적에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파견된 숙위 학생들은 진골이었다.<sup>72)</sup>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과 신라의 관계는 안정되었고, 진골 도당유학생이 파견이 감소되었다.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는 진골 이하의 학생들이 入仕路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당유학을 선택하였고, 진골 이하의 도당유학생 수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73)</sup>

신라의 도당유학은 기본적으로 국비 유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신라는 당에 조공한 이래 항상 왕자를 숙위로 파견하였고, 또 학생을 태학에 입학 시켜 학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그 기간은 10년이었다. 이때의 경제적 지원 체계는 신라와 당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sup>74)</sup>

안사의 난(755-763)은 당의 정치·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자감

70) 한영화, 앞의 논문, 2019, 367쪽.

7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선덕왕 9년 “여름 5월에 왕이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서 國學에 입학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72) 이제혁·박현숙, 「신라 하대 唐 국자감의 신라 유학생 증가 배경과 유학의 경제적 여건」, 『역사교육』 146, 2018, 228-229쪽.

73) 신형식, 「新羅의 對唐交涉上에 나타난 宿衛에 對한 一考察」, 『역사교육』 9, 1966, 75-76쪽.

74) 박명호,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6, 254-258쪽.

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당에서는 안사의 난 이후 국자감 건물이 허물어지고 재정이 피폐해지면서<sup>75)</sup>, 당 국자감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sup>76)</sup> 이러한 재정 악화로 인해 당 조정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즉, 안사의 난 이후 당과 신라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신라 학생들은 유학 비용의 일부를 사비로 감당하여야 했다. 기존의 국비 유학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신라의 도당유학생은 안사의 난 이후 당의 유학생 지원 악화 속에서도 학생의 자비 부담 및 재당 신라인들의 지원으로 유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당유학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아니면 유학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으며,<sup>77)</sup> 결국 도당유학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진골과 6두품에게만 한정되었다.<sup>78)</sup>

신라 하대의 도당유학생은 진골과 6두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원성왕은 독서삼품과의 특별 등용 규정을 통해 당에서 유학하던 이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진골의 경우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유학이라는 경로를 통해 별도의 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능력 있는 6두품에게는 국내에서는 신분에 의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왔다. 이는 도당유학이 신라 하대에 성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I 기사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듯이 6두품은 등용이 되기 위해서 당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수학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했으며, 단순히 유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등용될 수 없었다.

요컨대 독서삼품과는 원성왕의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유교적 소양

75) 『구당서』 권24, 지 4, 예의 4 “至德 연간 이후로, 전쟁과 병란이 그치지 않아 國子監의 학생들은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학생들은 모두 흠어졌으며, 강당과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늘 군사들에게 거처를 빌려주곤 하였다. 永泰 2년 정월에 이르러, 국자감의 祭酒인 蕭昕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유학을 숭상하고 학문을 중시하여 풍속과 교화를 바로잡는 것은 왕도 정치의 근본입니다.” 그 달 29일에 敕가 내려졌다.”

76) 『당회요』 권66, 현종 원화 13년.

77) 이제혁·박현숙, 앞의 논문, 2018, 240-241쪽.

78) 한영화, 앞의 논문, 2019, 367쪽.

을 갖춘 인재를 관직에 등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시도였던 것이다. 독서삼품과의 시험은 국학에서 수학하던 진골에게는 유리한 시험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입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였다. 또한 함께 시행된 예외 규정은 도당유학생이 대상이었는데, 이 규정을 통해 진골은 별도의 시험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6두품 지식인도 관직 등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제 4 장 독서삼품과 시행 결과와 의미

원성왕은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중 하나가 독서삼품과의 시행이었다. 그렇다면 독서삼품과를 시행한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그 결과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J-1. 元聖王 7(791) 정월 伊滄 悌恭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형에 처해졌다.<sup>79)</sup>

J-2. 元聖王 7(791) 10월 侍中 宗基가 물러나고, 大阿滄 俊鬮을 시중으로 삼았다.<sup>80)</sup>

J-3. 元聖王 6년(790)에 당에 사신으로 갔다 온 후 大阿滄의 지위를 받았고, 동왕(원성왕) 7년(791)에 逆臣을 주살하여 逆滄에 올랐으며, …<sup>81)</sup>

J-4. 元聖王 7(791) 11월 內省侍郎 金言을 三重阿滄으로 삼았다.<sup>82)</sup>

J 기사군은 원성왕 7년(791)에 있었던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 원성왕 즉위부터 반대 세력이었던 이찬 제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해당 반란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sup>83)</sup> 혹은 원성왕 정권의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숙청이었는데는 알 수 없다.<sup>84)</sup> 그러나 제공의 반란은 진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원성왕의 기존 반대 세력들 또한 함께 정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찬 제공으로 대표되는 유력 진골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에는 다른 진골들의 반발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7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7년 정월.

80)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7년 10월.

81)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헌덕왕 원년.

8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7년 11월.

83) 강성원, 「新羅時代 叛逆의 歷史的 性格 - 《三國史記》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43, 1983, 40-45쪽; 이기봉, 「신라 원성왕대의 재이와 정치·사회적 변동」, 『신라사학보』 25, 2012, 306-308쪽.

84) 권영오, 앞의 논문, 2022, 190쪽.

또 J-2, 3 기사를 보면 원성왕은 사망한 혜충태자의 아들 장남인 준옹을 시중으로 삼고, 차남인 언승은 역신[이찬 제공]을 주살하고 잡찬이 되었다. 혜충태자의 자식이자 자신의 손자들인 자신의 친위 세력을 주요직에 임명하였다. 왕의 손자가 시중에 임명되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sup>85)</sup>

시중은 집사성의 장관으로 대개 진골만 오를 수 있는 자리였다.<sup>86)</sup> 그런 자리에 왕의 혈족을 임명한다는 것은 진골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원성왕이 진골의 일정한 지지를 받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선 I-1 기사의 자옥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사사인 모초의 반대가 있었으나 시중이 왕의 의견에 동의하여 자옥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는 원성왕이 독서삼품과를 시행함으로써 일정 부분 진골을 회유하고 지지 세력을 모으는 데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내성시랑 김언을 三重阿滄으로 삼았다는 J-5 기사도 주목된다. 삼중아찬은 신라의 17관등 중 제 6등인 阿滄의 상위 첨설 관등이다.<sup>87)</sup> 6등보다 높은 5등 대아찬 이상은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이었다.<sup>88)</sup> 그렇다면 삼중아찬이 된 김언은 진골이 아닌 6두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성왕은 6두품인 김언이 골품제에 의한 관등의 상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급할 수 없자 상위 첨설 관등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sup>89)</sup> 원성왕이 6두품인 김언에게 첨설 관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원성왕의 지지 세력 확보가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원성왕의 독서삼품과를 통한 왕권 강화 시도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독서삼품과는 제도적인 면에서 지속되지 못하였다. 독서삼품과는 제도적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원성왕은

85) 권영오, 앞의 논문, 2022, 192쪽.

86) 『삼국사기』, 권38, 잡지 7, 직관 상, 집사성 “中侍는 1명이다. 眞德王 5년(651)에 두었다. 景德王 6년(747)에 이름을 侍中으로 바꾸었다. 관등[位]이 大阿滄에서 伊滄까지인 자를 임명하였다.”

87) 『삼국사기』, 권38, 잡지 7, 직관 상, 신라 경위 17관등 “6등은 阿滄이다. 重阿滄에서 四重阿滄까지 있었다.”

88) 『삼국사기』, 권38, 잡지 7, 직관 상, 신라 경위 17관등 “5등은 大阿滄이다. 여기에서부터 伊伐滄까지는 오직 眞骨만이 받을 수 있고, 다른 宗 받을 수 없다.”

89) 변태섭, 「新羅 官等の 性格」, 『역사교육』 1, 1956, 65-66쪽.

독서삼품과를 통해 진골을 포섭하고 도당유학생을 등용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면은 오히려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에 있어서 한계점이 되었다.

진골은 독서삼품과를 시험 통하여 기득권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통해 진골은 별도의 시험 없이 기득권 보장이 가능한 쉬운 관직 진출로가 생겼고, 동시에 유교적 소양을 갖춘 6두품까지 등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타협적 성격은 독서삼품과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삼국사기』 열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K-1. …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어 공사를 그르치며, 사람에 따라 관직을 선택하고, 총애하면 비록 재목이 아니더라도 높은 지위에 보내려 하고, 미워하면 비록 능력이 있더라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합니다. 취하고 버림에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옳고 그름을 따짐에 그 뜻이 어지럽게 되면, 國事가 혼탁해질 뿐만 아니라 국사를 돌보는 사람도 수고롭고 병이 들 것입니다. 만약 관직을 맡아 청렴결백하고 일을 처리함에 삼가고 예의 바르며, 뇌물의 길을 막고 청탁의 폐단을 멀리하며, 승진과 강등을 오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시행하고 (관직을) 주고 뺏는 것을 사랑과 미움으로써 하지 않는다면, 마치 저울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왜곡하지 않은 것처럼, 먹줄이 굵고 곧은 것을 숙이지 않는 것처럼 (정사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sup>90)</sup>

K-2. …(충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臣이 녹진의 말을 들었는데, 약이나 침과 같았습니다. 어찌 용치탕을 마시는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윽고 왕에게 (녹진의 말을) 낱낱이 아뢰었다. 왕이 말하기를, “寡人의 임금이 되고, 경이 宰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直言하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태자[儲君]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月池宮으로 가시오.”라고 하였다. 태자가 이 말을 듣고 [왕궁에] 들어와 하례하며 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가 곧다고 하였으니, 이번 일 역시 국가의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하였다.<sup>91)</sup>

90) 『삼국사기』 권45, 열전 5, 녹진.

91) 『삼국사기』 권45, 열전 5, 녹진.

K-1 기사에는 헌덕왕 14년(822)에 6두품 출신으로 추정되는 녹진이 인사 문제로 고민하던 각간 상대등 충공을 찾아가 당시 인사 실태에 대해 조언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녹진은 관리 임명이 편파적이고 정실에 의한 인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승진과 강등을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지는 K-2 기사에서는 왕이 이러한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헌덕왕대 인사행정의 문란한 상태와 함께 신라 하대에 능력 중심의 관료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2)</sup>

독서삼품과는 시행 초기 기대와 달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곧 폐지되었으나, 신라 사회에 능력 중심의 관료제와 지식인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독서삼품과를 통한 인식 변화는 6두품 출신이 당 유학을 통해 신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신라 하대에는 6두품 도당유학생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골품제라는 신분적 한계는 극복되지 못했다. 이는 신라 말기 대표적 지식인인 최치원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최치원은 6두품 출신으로 당에서 유학하고 빈공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귀국하였으나,<sup>93)</sup> 신라 사회 내에서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다.

L-1. (신라에) 머물러 侍讀 겸 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事가 되었다. 치원은 스스로 당나라 유학[西學]에서 얻은 것이 많아 [신라에] 왔을 때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신라가] 쇠퇴하는 말기여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나가서 大山郡 태수가 되었다.<sup>94)</sup>

92) 이영호, 앞의 책, 2015. 99쪽.

93)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11, 헌강왕 11년.

L-2. 眞聖王 8(894) 봄 2월에 崔致遠이 時務 10여 조를 올리자, 왕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崔致遠을 阿滄으로 삼았다.<sup>95)</sup>

L-3. 최치원은 서쪽에서 唐을 섬길 때부터 동쪽으로 고국에 돌아와서도 모두 혼란한 세상을 만나 나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이 이어지고, 움직이면 번번이 비난을 받으니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여 다시 관직에 나갈 뜻이 없었다. 유유자적하며 자유롭게 노닐어 산기슭과 강가나 바닷가에 정자와 누각을 짓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었으며, 서적을 베개 삼아 풍월을 읊었다. 경주의 남산, 剛州의 氷山, 陝州의 淸涼寺, 智異山의 雙谿寺, 合浦縣의 별장 같은 곳은 모두 (최치원이) 노닐던 곳이다.<sup>96)</sup>

최치원은 귀국 후 신라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당나라에서公私로 쓴 글을 편집한 『桂苑筆耕集』 28권을 헌강왕에게 바쳤다.<sup>97)</sup> 『桂苑筆耕集』에는 최치원이 당대에 지니고 있던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sup>98)</sup>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사를 통해 그의 의지가 신분적 한계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M-1 기사를 보면 『桂苑筆耕集』을 받은 헌강왕은 그를 侍讀 曺 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事に 임명하였다. 이후 진성여왕 8년(894)에 그는 시무10여조를 상소하여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진성여왕은 기뻐하며 그에게 6두품 최고의 관등인 阿滄을 내렸다.

최치원의 개혁에 관한 생각은 「朗慧和尚塔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낭혜화상탑비」은 진성여왕 3년(889) 농민 봉기 이후에 찬술되었으며, 분량도 5,120자에 달한다. 최치원은 찬술 과정에서 혼란한 사회 현실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비명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94) 『삼국사기』 권46, 열전 6, 최치원.

95)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11, 진성왕 8년.

96) 『삼국사기』 권46, 열전 6, 최치원.

97) 최치원, 「계원필경서」, 『계원필경』, “淮南에서 본국[신라]으로 돌아오면서 詔書 등을 전달하는 사신의 임무를 겸하였던, 前 都統巡官 承務郎 侍御史 內供奉 紫金魚袋를 하사받은 臣 崔致遠은 자신이 지은 雜詩, 賦, 表 등 문집 28권을 올립니다. 그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98) 장일규, 「최치원의 정치적 입장과 정치이념」,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231-244쪽.

다.<sup>99)</sup>

「낭혜화상탑비」에는 첫째, ‘군신 관계에서 군주는 인재를 잘 살피고 등용하는 것을 중시하며, 군주는 신하들로부터 간언을 잘 듣고 행해야 한다.’<sup>100)</sup>, 둘째, ‘지방 통치에 있어서 지방 수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sup>101)</sup>, 셋째, ‘개혁을 추진할 때는 그 시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sup>102)</sup>는 등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진골들의 반대로 그의 개혁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최치원은 태산군, 부성군, 천령군 태수 등 지방관을 전전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났다. L-3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치원은 결국 당대의 신분적인 한계에 도달하여 본인 이루고자 했던 개혁안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는 관직을 버리고 은둔하게 되었다. 최치원의 좌절은 독서삼품과 이후 신라 사회에 형성된 지식인 필요성 인식과 현실 사이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독서삼품과에서 비롯된 지식인 중시 사상은 신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고려 건국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계승되었다. 최치원의 손자인 최승로는 고려 성종에게 「시무28조」를 올려 유교적 정치 이념에 입각한 통치 체제 정비를 건의하였고<sup>103)</sup>,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져 고려의 국가 운영 원리가 되었다. 이

99) 곽승훈, 「「대낭혜화상비명」의 찬술에 나타난 최치원의 고민」, 『최치원의 중국사 탐구와 사산비명 찬술』, 한국사학, 2005, 161-171쪽.

100) 「朗慧和尚塔碑」 “...太師로 추증된 先大王께서 즉위하심에 이르러 (대사를) 흠모하고 존중하심이 先朝의 뜻과 같되 날로 더욱 두터워졌다. 대개 베풀어 행하실 바는 반드시 사자를 시켜서 물어본 뒤에야 거행하셨다...옛날의 스승은 六經에 있으며, 오늘날의 보좌할 이로는 三卿이 있습니다. 늙은 산승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리(虺)처럼 비싼 뱀갈과 양식을 줄먹을 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세 글자가 있으니 부족하지만 아뢰고자 하오니, ‘관리를 잘 등용하라[能官人]’는 것입니다....”

101) 「朗慧和尚塔碑」 “...憲安大王께서는 단월이자 두 번째 舒發韓인 魏昕과 더불어 남북 재상 각각 자기 관아에 있는 것이 좌상, 우상과 같음이었다. 멀리서 제자의 예를 보이고 차와 향을 예물로 보냈는데, 한 달도 거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사의) 명성이 신라를 적시게 하니, 선비들은 대사의 법문을 알지 못함을 일세의 수치로 여겼다....”

102) 「朗慧和尚塔碑」 “咸通 12(871) 가을에 교서를 보내어 부르시기를, “어찌 산림은 가까이 하시면서 도성은 멀리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대사가 생도들에게 말하였다. (晉侯가) 갑자기 伯宗을 명하듯 하시니, (廬山의) 慧遠 스님에게는 심히 부끄럽다. 그러나 도가 장차 행하여지게 하려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석존께서) 부촉하신 바를 생각하니, 내가 가야겠다....”

103) 『고려사』 권93, 열전 6, 제신 최승로 “신이 비록 어리석고 몽매하나 외람되어 국가의 요직에 있으면서 이미 아뢰려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회피할 길도 없으므로 삼가 비루한 소견을 기록하니, 시무책 28조에 지나지 않지만, 이를 모두 별지로 첨부하여 올립니다...최승로는 왕이 뜻을 가지고 있어 함께 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글을 올렸다. 나머지 6개 조항은 사서에 전해지지 않는다.”

는 최치원의 개혁 의지가 고려까지 전승 및 실현된 것으로 관련 제도의 연속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최승로 외에도 신라 출신의 6두품 출신 지식인들은 고려 조정에 진출하여 국가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04)</sup> 이는 신라에서 실현되지 못한 지식인 중시 사상이 고려에서 제도적으로 완성된 결과였다.

이러한 인재의 이동과 제도적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제도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독서삼품과로 시작된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사상은 신라의 골품제라는 구조적 제약에 막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으나, 고려 건국과 함께 과거제라는 새로운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고려의 과거제는 단순히 중국 제도의 모방이 아니라, 신라 독서삼품과의 경험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완성이었다. 능력주의적 관료제가 결국 고려에서 비로소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원성왕대 독서삼품과의 시행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104) 전기용, 「新羅의 멸망과 新羅人の 동향」, 『新羅의 멸망과 景文王家』, 혜안, 2010, 287-291쪽.

## 제 5 장 맺 음 말

신라 하대 원성왕의 즉위와 독서삼품과 시행은 정치적 정통성 문제와 관료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중요한 제도적 변화였다.

원성왕은 해공왕 시해 후 김주원과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승리하여 즉위하였으나, 유력한 왕위계승자였던 김주원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과정에서 정통성의 불안정함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원성왕은 즉위 직후 문무백관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고 주요 관직을 새로 임명하여 자신의 세력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찬 제공이 시중직 임명을 거절한 사례에서 보듯이, 원성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진골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원성왕은 이러한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상징적 차원에서는 해공왕대의 오묘제 개정안을 수용하여 중대와의 연속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만파식적 설화를 통해 자신의 왕위 계승 정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성왕 4년(788)에 시행된 독서삼품과는 왕권 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핵심적 정책이었다.

독서삼품과는 국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관인 등용 제도였다. 『삼국사기』 직관지 국학조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독서삼품과는 국학의 졸업 시험이 아니라 국학생들도 응시할 수 있는 관인 등용 방식이었다. 시험과목은 상품의 경우 『춘추좌씨전』과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을 통달하면서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로, 중품은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로, 하품은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로 구분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선』이 상품 등급의 핵심 과목으로 채택된 점이다. 이는 무열왕대 당의 제서를 해석하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의 제서에 사용된 변려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선』 학습이 필수적이었다. 신라는 국학에서 『문선』을 교육함으로써 당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으며, 독서삼품과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였다. 동시에 『문선』이 이미 국학의 교과목이었다는 점에서, 독서삼품과는 진골들의 교육적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타협적 성격을

띠었다.

독서삼품과에는 "오경과 삼사, 제자백가의 저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이라면 등급을 뛰어넘어 선발하여 등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원성왕 5년 자옥의 소수 임명 사례와 애장왕 원년 양열의 소수 임명 사례를 통해 볼 때, 이 예외 규정은 주로 도당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안사의 난 이후 당 국자감의 재정 악화로 인해 도당유학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진골과 6두품에게만 한정되었으며,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예외 규정이었다.

독서삼품과 시행의 단기적 성과는 원성왕 7년의 정치적 변화에서 확인된다. 이찬 제공의 반란이 진압되고, 원성왕의 손자인 준옹이 시중에, 언승이 잡찬에 임명되었으며, 6두품 출신으로 추정되는 김언이 삼중아찬이라는 첩설관등을 받았다. 이는 원성왕이 독서삼품과를 통해 일정한 진골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서삼품과는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외 규정을 통해 진골은 별도의 시험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시험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또한 6두품 도당유학생들은 등용되더라도 골품제의 한계로 인해 지방관에만 임명되어 신분적 제약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헌덕왕대의 녹진의 조언에서 확인되는 인사행정의 문란은 독서삼품과 이후에도 능력 중심의 관료제가 정착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비록 독서삼품과는 신라 사회에서 제도적 완성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 역사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첫째, "전에는 단지 활쏘기로 관리를 선발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고쳤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혈연 중심에서 학문적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둘째, 6두품 출신 지식인들의 관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도당유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능력 중심의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켜 신라 말기 지식인층의 성장과 고려 초기 과거제 도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최치원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도당유학을 통해 빈공과에 급제하고 귀국 후 『계원필경집』을 헌정하며 시무10여조를 상소하여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골품제의 벽에 막혀 아찬이라는 6두품 최고 관등에 그쳤고 결국 관직을 버리고 은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손자 최

승로가 고려 성종에게 「시무28조」를 올려 유교적 정치 이념에 입각한 통치 체제 정비를 건의하고 이것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신라에서 실현되지 못한 지식인 중시 사상이 고려에서 제도적으로 계승·발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상과 같이 원성왕의 독서삼품과 시행은 신라 하대의 정치적 변화와 제도적 실험이 결합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비록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도적 정착에는 실패하였으나, 능력주의적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후 고려 과거제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한국 고대 정치제도 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桂苑筆耕』

「朗慧和尚塔碑」

『舊唐書』

『新唐書』

『唐六典』

『唐令拾遺』

『唐令拾遺補』

『唐大詔令集』

『唐摭言』

『唐會要』

『冊府元龜』

### 2. 단행본

곽승훈, 『최치원의 중국사 탐구와 사산비명 찬술』, 한국사학, 2005.

권영오,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김수태,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김창검, 『阜村申延澈教授 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1995.

\_\_\_\_\_,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동아일보사 편, 『中國의 古典 100選』, 동아일보사, 1980.

박명호,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6.

이기동,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이기백,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_\_\_\_\_,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 주보돈 외,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 이인철,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 전기웅, 『新羅의 멸망과 景文王家』, 혜안, 2010.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 하원수, 『과거제도형성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 한준수,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 3. 학술논문

- 강성원, 「新羅時代 叛逆의 歷史的 性格 - 《三國史記》를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43, 한국사연구회, 1983.
- 고경석, 「신라 관인선발제도의 변화」, 『역사와현실』 23, 한국역사연구회, 1997.
- 곽명준, 「新羅 下代 讀書三品科의 시행과 변화」, 『사학연구』 157, 한국사학회, 2025.
- 권영오, 「新羅 元聖王의 즉위 과정」, 『부대사학』 19, 부산대학교사학회, 1995.
- \_\_\_\_\_, 「원성왕대 태자 책봉과 정국 운영」, 『지역과 역사』 51, 부경역사연구소, 2022.
- \_\_\_\_\_, 「신라 하대 초기 인검계의 왕위계승과 분열」, 『대구사학』 154, 대구사학회, 2024.
- 김경애,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 王室의 成立」,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학회, 2006.
- 김상현,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1981.
- 박초롱, 「신라 하대 왕실의 종묘제 운영과 그 여파」, 『사림』 81, 수선사학회, 2022.
- 변태섭, 「新羅 官等の 性格」, 『역사교육』 1, 역사교육연구회, 1956.
- 신형식, 「新羅의 對唐交涉上에 나타난 宿衛에 對한 一考察」, 『역사교육』 9, 역사교육연구회, 1966.
- 양진성, 「唐代 制書式 復元の 재검토 - 制授告身式과 制授告身の 분석을 중심

- 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52, 중국고중세사학회, 2019.
- 윤선태, 「『三國遺事』 紀異篇 ‘元聖大王’條의 가치 -신라 ‘下古’시기의 정치구조와 그 함의-」,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7.
- 윤준혁, 「신라 국학생의 구성과 학생녹읍」, 『신라사학보』 60, 신라사학회, 2024.
- 이기백,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사회과학』 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958.
- \_\_\_\_\_, 「新羅統一期 및 高麗初期의 儒教的 政治理念」, 『대동문화연구』 6·7, 1970.
- 이기봉, 「신라 원성왕대의 재이와 정치·사회적 변동」, 『신라사학보』 25, 신라사학회, 2012.
- 이명식, 「新羅 國學의 運營과 再編」, 『대구사학』 59, 대구사학회, 2000.
- 이영호, 「新羅 國學의 成立과 變遷」, 『역사교육논집』 57, 2015.
- 이제혁·박현숙, 「신라 하대 唐 국자감의 신라 유학생 증가 배경과 유학의 경제적 여건」, 『역사교육』 146, 역사교육연구회, 2018.
- 이희관, 「新羅中代의 國學과 國學生 -『三國史記』 38 國學條 學生關係規定의 再檢討-」,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 신라의 인재양성과 선발』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8.
- 전덕재, 「신라의 독서삼품과 : 한국 과거제도의 前史」, 『한국사 시민강좌』 46, 일조각, 2010.
- 정호섭, 「新羅의 國學과 學生祿邑」, 『사충』 58, 歷史學硏究會, 2004.
- 조범환, 「통일신라 국학의 변천과 진골」, 『동아시아고대학』 63,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 한영화, 「신라의 國學 교육과 관인 선발」, 『신라사학보』 45, 신라사학회, 2019.
- 홍기자, 「신라 하대 독서삼품과」,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 신라의 인재양성과 선발』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8.
- 木村 誠, 統一新羅의 官僚制, 『日本古代史講座』 6, 東京, 學生社, 1982.

## 부 록

### [부도 1] 制書式

문하{수문자}앞으로: 운운{문서 내용}. 주자(主者)는 시행하라.

몇년(年) 몇월(月) <어필(御筆)로 쓴 날짜[御畫]>일(日)

중서령, 관함[官]과 봉작[封]을 갖춘 신(臣) 아무개[성·이름] 선(宣)하였음.

중서시랑, 관함[官]과 봉작[封]을 갖춘 신(臣) 아무개[성·이름] 봉(奉)하였음.

중서사인, 관함[官]과 봉작[封]을 갖춘 신(臣) 아무개[성·이름] 행(行)하였음.

시중, 관함[官]과 봉작[封]을 갖춘 신(臣) 아무개[이름]

항문시랑, 관함[官]과 봉작[封]을 갖춘 신(臣) 아무개[이름]

급사중, 관함[官]과 봉작[封]을 갖춘 신[臣] 아무개[이름] 등이 말씀을 올립니다.

신이 듣건대: (어떤 일은) 이리이러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 등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말씀하신 지극함을 감당할 길 없습니다. 삼가 제서를 받들기를 이상과 같이하였으며, 제(制)를 받들어 상서성(의 담당 관사)에 회부하여[付外] 시행하길 청합니다.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몇년 몇월 몇일

가(可). <어필(御筆)로 씀[御畫]>

### [부도 2] 肅宗命皇太子監國制

門下에 다음과 같이 알리노라. 천하의 근본은 元良(: 황태자)에게 있으며 사방의 빛이 그의 계승에 힘입기 마련이니 이는 전하고 귀의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살피고 어루만지는 막중함에 부응하여 전대의 업적을 능히 넓히고 사람들과 함께 邦國을 지켜야 할 것이다. 君父만을 아버지로 여길 것이 아니라 生靈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짐이 弓劍(: 선황께서 남기신 자취)을 애통하게 그리면서 續姪(: 상복)을 입고 생활하였으나 근자에는 질병으로 인해 미편함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도적들의 잔당이 여전히 우려스럽고, 中原에는 전란이 많으니 軍國의 중대한 사무는 해아려 처결하고 匕鬯(: 종묘의 제사)을 살펴 함께 宗祧(: 종묘)를 받드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니라. 황태자 豫(: 代宗의 휘)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날로 덕업을 쌓아 中興을 이룩하는데 이미 큰 공을 세웠느니라. 內寢에 문안을 드리면서는 九國에 대한 꿈을 미리 점쳤으며 戎闔(: 軍府)에서 [적을] 제압하여 승리하는 책략으로 말하자면 五官의 재능보다도 뛰어났다 할 것이다. 시국이 바야흐로 어려움이 많고 의례상 거상중이니 庶政을 元子에게 맡겨 임시로 監國을 담당하게 함이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上天이 보배를 내리자, 楚州에서 이를 바쳤는데, 神明이 曆數의 符를 알려주었고, 金璧으로는 요사스러운 재앙의 기운을 평정하게 하였도다. 瑞命을 모두 모으고 크나큰 길조를 공경히 받들어 이를 계기로 근본의 자리에 올라 五紀를 조화롭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元年은 응당 寶應

元年으로 고칠 것이며 建巳月을 四月로 고치며 나머지 달은 모두 평소의 수대로 하되, 여전히 舊例에 따라 正月 一日을 歲首로 하라. 이러한 복응을 받아 升平의 시대를 세우도록 日月의 찬란한 빛에 의거하여 구름과 비와 같은 은택을 펼치노라. 천하에 감옥에 구금할 죄인들에 대해서는 죄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이미 발각이 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경우, 이미 결정이 났거나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이] 모두 4월 15일 昧爽이전이라면 일체 방면하라. 좌천을 당해 귀양을 간 관원에 대해서는 [실정을] 헤아려 [귀양을 간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관직으로 옮기게 하고, 유배중인 사람들은 즉각 일체 방면하여 돌아오게 하라. 有司는 또한 사례 별로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사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따지지 말고 즉각 모두 방면하라). 楚州刺史와 보배가 나온 縣의 관원 및 보배를 올린 관원등은 살피서 승진시키도록 하고, 보배를 올린 관원을 수행한 典과 僉등에 대해서는 각각 살피서 관직을 내려주도록 하라. [이상의 조치를] 中外에 선포하여 모두가 짐의 뜻을 알게 하라. 主者는 시행하라.

司徒兼中書令 闕

戶部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兼知中書事 臣 元載

宣德郎檢校中書舍人臣 楊綰 奉行

特進·行侍中·上柱國·韓國公 臣 晉卿,

銀青光祿大夫·行黃門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臣 遵慶,

朝請大夫·守給事中 臣 液 등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신들이 듣건대, 빛이 나뉘어 둘이 되는 것은 천하를 비추기 위함이요, 천둥이 이어져 우레가 뒹은 萬邦을 울곧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書』(: 『尙書』)에서는 元良을 찬미한 것이며 『易』(: 『周易』)에서는 匕鬯(: 종묘의 제사)을 밝힌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황제폐하께서는 현묘하신 덕을 널리 펼치셨고 仁風을 크게 젖어들게 하셨으며 宗社를 다시 회복하시고 위태로움을 크게 구제하셨습니다. 효도를 깊고 정성스레 하셨으며 성스러운신 염려를 망극할 지경까지 하시어 거상중에는 성체를 훼손하지 않게 되었으니 공경스럽고 진중하심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황태자께서는 누대에 걸친 聖君들의 자질을 계승하셨고 하늘이 낸 가르침을 품부 받으셨습니다. 문안을 드릴 때는 예에 맞게 하시어 세 차례에 걸친 알현을 빠뜨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크나큰 성공을 보위하셨고, 이미 七德을 펼치셨습니다. 이에 방국을 담당할 중임을 명하시고 知子의 총명을 밝히도록 윤택할 만합니다. 하물며 神明이 符瑞를 알리고, 하늘이 보배를 숨기지 않으며 크나큰 명을 찬란히 밝히고 妖氣를 평정하게 하였으니 어찌 金縢이 다음 날의 기대를 열어주고 玄符가 彝倫의 차서를 알려준 것에만 사례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연대를 기록하심에 표준을 세우시고 옛 것을 회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새롭게 하셨고, 祥瑞로 인해 이를 연호에 드러내게 하셨으며 인심에 따라 후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죄과를 사면하심이 너무도 막대하여 감옥은 모두 텅 비게 되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黥으로 옮겨가게 하셨으며 멀고 궁벽한 지역까지 반드시 혜택이 미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우신 조치로 신령이 내려주신 복을 밝히시니 官吏들은 크나큰 은혜에 몸 담그게 되었습니다. 臣 등은 외람되게도 叻侍 軒墀(: 조정)에서 시종하면서 공경스레 典禮를 받들게 되었으니 그 감격함으로 인해 떠받드는 지극함으로 말하자면 보통의 심정 萬倍에 달하니 절박하고 진실됨 심정이 다다름을 이루다 감당키 어렵습니다. 制(: 制書)를 받들어 外(: 尙書省)에 의뢰하여 시행할 것을 청합니다.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 ABSTRACT

### The Implement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DokseoSampungwa during the Reign of King Wonseong of S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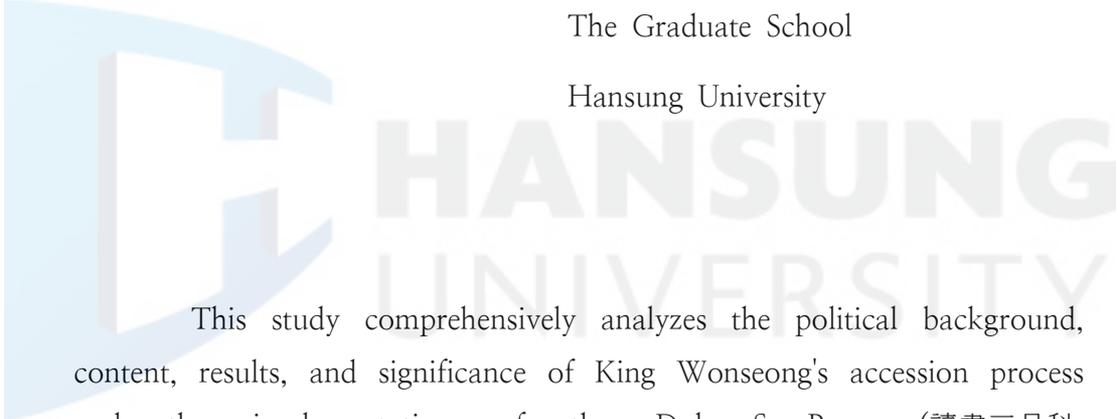
Lee, Ha-Min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political background, content, results, and significance of King Wonseong's accession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okseoSamPungwa(讀書三品科, Three-Grade Literary Examination) during the late Silla period.

After the assassination of King Hyegong, King Wonseong ascended to the throne by defeating Kim Juwon, who had been a strong candidate for succession. However, this process left him with the fundamental challenge of legitimacy instability. As evidenced by Ichan Jegong's refusal to accept appointment as Chief Minister, true-bone aristocratic forces that did not recognize Wonseong's legitimacy still existed. To overcome this, Wonseong attempted to consolidate his power base and strengthen his legitimacy through promoting all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by one rank, adopting the Five Temple System reform from King Hyegong's

reign, and utilizing the Manpasikjeok legend.

The DokseoSampungwa, implemented in the fourth year of King Wonseong's reign (788), was a key policy for strengthening royal authority under these political circumstances. It was a civil service recruitment system closely connected to the National Academy(Gughak), serving not as a graduation examination for the academy but as a separate method for selecting officials that academy students could also take. The examination subjects were divided into superior, middle, and inferior grades. The adoption of the Wenxuan as a core subject for the superior grade stemmed from the practical need for diplomatic skills in interpreting the parallel prose used in Tang imperial edicts. Simultaneously, since the Wenxuan was already part of the National Academy curriculum, this represented a compromise that institutionally recognized the educational privileges of true-bone aristocrats.

The DokseoSampungwa included an exceptional provision for "those widely versed in the Five Classics, Three Histories, and works of various philosophical schools." Based on the appointments of Jaok and Yangryeol as county magistrates, this provision primarily targeted students who had studied in Tang China. Following the An Lushan Rebellion, this served as a mechanism to co-opt true-bone and sixth-head-rank students studying in Tang who had economic means. It provided true-bone aristocrats with opportunities for official positions without separate examinations, while offering sixth-head-rank scholars chances to partially overcome social limitations.

The short-term success of implementing the DokseoSampungwa can be confirmed through political changes in Wonseong's seventh year. The suppression of Ichan Jegong's rebellion, the appointment of Wonseong's grandsons Junong and Eonseung to major positions, and the appointment of Kim Eon (presumed to be of sixth-head-rank origin) to the

supplementary rank of Samjung Achan demonstrate that Wonseong secured support from certain true-bone aristocrats and achieved political stability.

However, the DokseoSampungwa failed to ensure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The abuse of exceptional provisions led to the hollowing out of the examination system, the bone-rank system limited sixth-head-rank appointees to local positions, and favoritism in personnel management persisted. The administrative corruption confirmed in Nokjin's advice during King Heondeok's reign shows that a merit-based bureaucracy was not established even after the DokseoSamPungwa.

Although the DokseoSampungwa did not achieve institutional completion in Silla, it holds significant meaning in attempting a transition from kinship-based to academic ability-based talent selectio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ixth-head-rank intellectuals in official positions, and spreading new awareness of merit-based bureaucracy. The contrast between Choe Chiwon's frustration and his grandson Choe Seungro's success in Goryeo symbolically demonstrates how the intellectual-centered ideology unrealized in Silla was inherited and developed into Goryeo's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Key-words】** King Wonseong(元聖王), DokseoSampungwa(讀書三品科), Gukgak (國學), Wenxuan(文選), Students Studying in Tang China (渡唐留學生)